

Section
02

한국 근로자의 권리 보호

교섭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하고 절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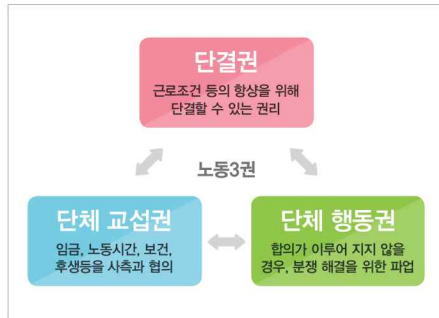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의료 서비스, 근로자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 기관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제공하는 급여



한국에서는 최고법인 헌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이를 노동3권이라고 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다. 단체행동권은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파업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노동3권은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도중에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사용자가 여기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만약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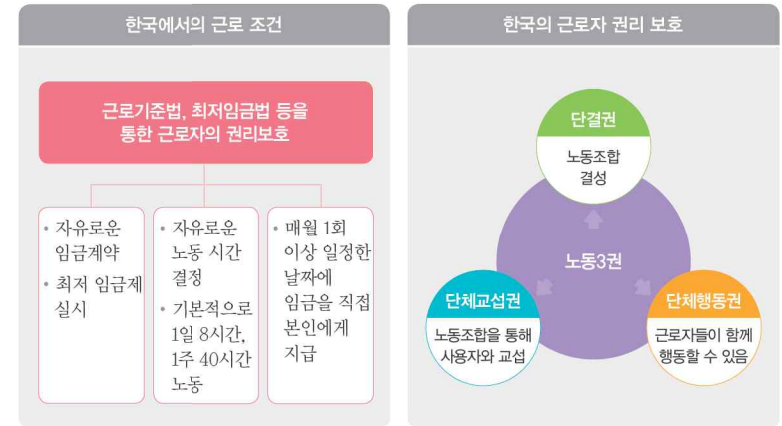
대한민국 탐구탐구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을 때 퇴직자는 바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할 당시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2015년 현재 실업급여액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50%를 받게 되는데 하루 최대 4만 3천원을 넘길 수 없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국가 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기



문제풀기

1. 다음의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국에서는 ()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 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노동3권과 그 의미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 | | | | |
|---------|---|---|-----------------------------|
| ① 단결권 | • | • | ㉠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
| ② 단체교섭권 | • | • | ㉡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
| ③ 단체행동권 | • | • | ㉢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